

# 가을밤, 달빛에게 말을 걸다

제7회 문학아 놀자 - 2011 문학콘서트

# 가을밤, 달빛에게 말을 걸다

2011. 10. 2(일) 저녁 6시 가마골소극장 (도사철도 3호선 거제역 2번 출구)

■주최 부산문화연구원 · 가마골소극장

■후원 BS·CF 부산문화재단

## program

사회 / 김성배 (시인·부산문화연구원 대표)

### 식전행사

- 관람객에게 추천권 배부

### 개회식

#### 1. 영상시 상영

영상시 / 「구름의 가계」(시 손택수)

#### 2. 오키나 독주

곡 / 광화문연가, 숨어우는 바람소리  
연주 / 이석화(오키나리나전문연주자)

#### 3. 소설낭독 - 무용과의 만남

소설 / 「플라이 플라이, 중에서」  
(작 이상섭 소설가)

낭독 / 연희단거리패 배우  
춤 / 한지은(춤꾼)

#### 4. 시낭송 - 국악과의 만남

시 / 「근행」 낭송 / 신정민(시인)  
반주 / 대금 - 채수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연주 / 적대소리 - 한병

시 / 「편지」 낭송 / 안효희(시인)

반주 / 해금 - 윤해송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연주 /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 5. 시퍼포먼스

시 / 「서시」 외(작 윤동주 시인)

출연 / 가마골소극장 단원

#### 6. 색소폰연주

곡 / 가을편지, 대니보이

연주 / 김찬식(시인, 색소폰전문연주자)

#### 7. 문학과 연극의 만남

시 / 「춤이야기」 이문택(시인)

- 우리 얼음 위에 도시를 세운다

(유지집 <천국과 지옥> 갈라공연)

연극공연 / 연희단거리패 단원일동

#### 8. 문학콘서트

곡 / 오 해피데이, 우정의 노래

노래 / 남성중창단-해피딩상블

#### 9. 책과 팝송

곡 / 마이웨이, 달라일라

노래 / 손영희(팝페라 가수)

### 폐회식

#### 식후행사 - 문학나눔 행사

시집, 소설집, 도서상품권, 연극관광권 등

문학나눔 행사

- 행사 후 추천을 통해 관람객에게 증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본 행사는 2011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구름의 가계

상할머니의 몸속에선 가끔씩 구름 우는 소리가 들렸다  
쿠르릉 먹구름 우는 소리가 신음 신음 새어나왔다

그런 날은 영락없이 비가 내렸다  
고가에 너머의 구름이  
지붕 위까지 바짝  
끌어당겨지곤 하였다

상할머니는 비를 불러왔다 몸이 쿵쿵 쑤시는 아픔으로  
들판을 쿵쿵 쑤시며  
마디마디 뼈마디 저린 비를 짊고왔다

상할머니의 몸은 천문을 품고 있었던 게지  
내가 알지 못할 예감으로 떨리는 우듬지 끝  
떨어져내리는 잎사귀 잎사귀마다  
빛나는 통증으로 하늘과 이어져 있었던 게지

쿠르릉 밤늦게  
저린 다리를 끌며 일어난 어머니 빨래를 걷는다  
서러운 몸속에서 몸속으로 구름이 유전하고 있다

### 연주 손택수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시집 『나무의 수사학』 외

## 광화문 연가

노래 이문세

이제 모두 세월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갔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덮힌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오월의 꽃향기가  
가슴깊이 그리워지면  
눈내린 광화문 네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덮힌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오월의 꽃향기가  
가슴깊이 그리워지면  
눈내린 광화문 네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덮힌 조그만 교회당

## 숨어우는 바람소리

노래 이정옥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나는 차 한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리가 숨어우는 바람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 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있는다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아- 아-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우는 바람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 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있는다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아- 아-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우는 바람소리

연주 이석화

오카리나 전문 연주자

“소주 일 인분어치만 사줄래?  
모처럼 날아온 유미의 문자. 안 그래도 기분 풀풀한데 러브러브 하트를 수  
천 개라도 날리고 싶다.

“아직 연구소에서 열라 근무할 시간 아냐?”

문자를 보내자 다시 날아오는 답장.

“나 기분 완전히 방전 상태. 지금 어디?”

“등대숲!”

갑자기 머릿속에 물음표가 등등 떠다닌다. 근무는 안 하고 등대라니, 무슨  
일이 있나? 유미도 나처럼 비인간 취급이라도 당한 걸까. 외출을 서두른다.

“기어이 기어 나가는구먼!”

아니나 다를까 백 여사의 가시 돋친 말이 터진다.

유미는 등대휴게소 아래 벤치에 앉아 있다. 얼굴이 불쾌한 걸 보니 제법 오  
래 있었던 모양이다. 벌써 오 인분은 마신 것 같다.

“너?”

받가운 나머지 '흰소리를 쳐도 유미는 대꾸가 없다. 역시 기분이 왕창 다운  
된 게 맞긴 맞는 모양이다. 유미는 먼 바다로 시선만 던지고 있다. 땅거미가  
지는 중이라 바다색도 짙어지고 있다. 이제 조만간 등대불도 꺼질 것이다. 바  
다만 바라보던 유미가 넋두리하듯 뻗는다.

“길이 안 보여.”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되묻는다.

“왜, 교수가 되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아?”

“별써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야. 뭔가 작은 불씨라도 보여야 힘을 얻어 밀고  
나갈 거 아냐. 근데 이걸 아무리 노력해도 비전이 없어.”

“그래도 포기하기엔 우린 아직 젊잖아?”

“그걸 누가 모르냐, 알면서도 잘 안 되니깐 그렇지.”

“조금만 여유를 갖고 마음을 가다듬어 봐. 넌 멋진 교수가 될 수 있어.”

어쩌다 이런 말을 내뱉는가. 내 신세는 어찌지 못하면서 말이다.

“고마워. 하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우리도 알 나이잖아?”

맞긴 맞는 말이다. 등대의 불빛이 바다 위로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저 빛이 밤길을 안내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빛이 없어도 스스로 발  
광체가 되어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포기하기엔 우린 너무 젊다.

“야, 우리 저 아래 내려가 볼래?”

“거긴 왜?”

“반딧불이 서식지래.”

“누가 그래?”

“저번에 발견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냈는걸.”

유미는 내 제의가 엉뚱하다는 표정이다. 마치 이 도시에 반딧불이가 살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것 같다. 내가 고개를 주억거리자 먼저 그녀가 엉덩이를 일으킨다. 휘청, 흔들리는 게 불안하다. 하긴 이 도시 한구석에 반딧불이가 살고 있다는 게 나로서도 신기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눈으로 반딧불이를 보고 싶었다. 왜 그랬을까. 스스로 발광체가 되고 싶어서였는지, 빛이 되고 싶어서였는지.

어둠 속에서도 제 스스로 빛이 되고 길이 되어 날아가는 반딧불이. 하지만 숲 속으로 아무리 헤치고 들어가도 반딧불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쳤다는 듯이 유미가 투덜댄다.

“너, 서식지를 잘못 찾아온 건 아냐?”

“기사대로라면 여기가 분명해. 근데 왜 불빛 하나 없는 거지?”

“글쎄, 단체 바캉스라도 떠났나 보다.”

나도 포기한 듯 적당한 곳에 엉덩이를 부러버린다. 간간이 들리던 인기척 하나 없다. 들려오는 거라고는 파도 소리가 전부다. 앉고 보니 풀밭이 천연 매트리스다. 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별러덩 드러눕는다. 눕고 보니 보이지 않던 빛들이 하늘에 수북하다.

“와우, 입 벌리고 가만있으면 별빛이 쏟아져 들어오겠어.”

“그럼 가슴이 뜨거워질까?”

“안 벌리는 것 보담 낫겠지.”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한다. 정신이 다 아릿하다. 갑자기 유미를 벽난로처럼 꼭 끌어안고 싶다.

- 이상설, 소설 『플라이 플라이』 중에서  
(소설집 『바닷가 그 집에서, 이틀』 중에서)

### 소설 이상설

1998년 <국제신문> 신춘문에 당선

소설집 『숨결의 두께』, 『그곳에는 눈물들이 모인다』 외

낭독 연희단거리패 단원

무용 한지은(출판)

## 은행

1. 티벳의 들녘은  
완성되는 순간 쓸어버린 만다라

수행승의 손끝에서 떨어지던 색색의 모래 알갱이들,  
헤어진 인연들이  
거둬낸 천 년 후인 지금  
거칠고 향량한 저 자갈밭에  
씨감자 만한 돌맹이가 되어 뒹굴고 있다

이승은 신들이 꿈꾸는 마지막 거처

멀리  
즐거운 지옥과 따분한 극락 사이에  
단 한 사람  
길을 내며 걷고 있다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누군가 만들어놓은 길을 걷느라 길을 잃고 헤메었구나  
걸어야 길이 생기는 허허벌판을  
라사공항을 향해 달리는 9인승 승합차 밖에서 읽는다

2. 그는 내가 모르는 만 년 전 호수의 물고기  
그의 몸이 깨진 지울처럼 반짝인다

편지

열여섯 살  
 꽃물결 같은 사랑하는 딸아  
 네 가슴 넘나드는 우윳빛 물결아  
 냄새나는 운동화 속에 발 집어넣고 대문 나서는  
 세상을 디디고 선 네 하얀 두 발을 보면  
 가슴이 시러온다  
 하얀 브라우스는  
 세상의 스쳐 가는 모든 바람 껴안으려 들썩이고  
 꿈결같이 고운 영상 어리는  
 너의 눈빛 뒤에서  
 왜 이렇게 슬픔이 더 먼저 오는 것일까  
 오늘은 네 방에 가만히 누워 본다  
 너의 베개를 베고 이불을 덮고  
 너의 천장 너의 형광등  
 너의 창문 넘어 석죽색 하늘을 본다  
 아무렇게 벗어 놓은 잠옷과 브레지어를 보며  
 네 풋기름이 생각나 풋복숭아가 떠오르고  
 분 냄새 같은 너의 채취를 느낀다  
 여자이기를 원하는 너에게  
 아직은 어리디 어린 딸이기를 원하는  
 이 엄마와 이 세상을 용서해다오  
 찰랑찰랑 넘쳐 오르는 네 꿈이  
 달디달게 익어가기 위하여  
 바람 나무끼는 이 계절 잠시 눈감아다오  
 그저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사랑  
 너는 맘껏 들여 마시기만 하여다오  
 열여섯 살  
 꽃물결 같은 사랑하는 딸아

낭송 안효희

1999년 『시와사상』 동단  
 시집 『꽃잎 같은 새벽 네 시』

연주 윤해승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3.

야크의 힘줄에 꿰어 구슬이 된 푸른 하늘  
 구르는 달에 구멍을 내어 목걸이를 만드는 여자를 잇는다 해도  
 이름 없으니 묻지 말라던 비썩 마른 나무와  
 청보랏빛 앓은뱅이 꽃이 6월인 듯 눈 앞에 어른거리도  
 내가 원하는 티벳의 들녘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신계 바친 절의 횡수를 세지 않아  
 땅에 닿은 이마의 굳은살만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의 깊이만큼 내려가  
 영혼의 등을 한 번 쓰다듬어 주는 일  
 손 한 번 잡아주고 오는 일  
 그것이 오체투지의 전부인 그에게서  
 낡은 신발보다 못한 내 슬픔을 거두어들인다

한 순간 혹은 덧없음으로 다가와  
 태어나 단 한 번도 죽어본 적 없는 나를 스쳐가는 티벳

환생인가  
 수장터의 구름이 펼쳐인다  
 오색 타르초를 조용히 읽고 있는 바람이 펼쳐인다

낭송 신정민

2003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등단  
 시집 『꽃들이 딸꽃』

연주 채수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 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시 퍼포먼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뒤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 또 다른 고향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밤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나  
백골이 우는 것이나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나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아들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윤동주 1917-1945

행위 가마골소극장 단원

시인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문학콘서트

2011 문학아 놀자

## 가을 편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낙엽이 쌓이던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해매인 마음  
보내 드려요 낙엽이 가버린 날  
해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남송 김찬식

시인 · 색소폰니스트  
시집 『누구나의 가슴에도 강물은 흐른다』

## 춤꾼이야기

이운택

슬픈 노래가 너를 천국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  
슬픈 노래가 흐를 때 노래 지긋이 밟고 빙글  
멋지게 스테이지 한 가운데로  
이 세상과 우리 사이 발이 있다  
하나님은 발이 없지  
막달레나 마리아도 내 발을 닦아 주었다  
미스터 J 춤을 추세요  
당신의 발 너무 날렵해 날아다니는 것 같애  
나는 날지 않았다  
스텝을 밟으며 욕심없이 발자국 지우며  
슬픈 노래 가득 찬 세상 손을 내밀었지  
한 번 추실까요, 아가씨?

시 이운택(시인)

1979년 「현대시화」에 「천체수업」으로 등단  
시집 『시인』, 『밥의 사랑』 외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연극공연 연희단거리패 단원일동

## 우정의 노래

소리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함께 노래 부르세  
잔을 가득 채워서

축배를 높이 드세  
여기 다시 모인 친구

정다운 나의 친구여  
우정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드세나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드세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 잔을 드세나  
운명의 여신은

우리 웃으며 반기리라

### 노래 해피앙상블

전통 클래식음악은 물론 대중음악을 연주하며 남성 성악가 열두 명으로 구성된 단체

## My Way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자,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군  
내 마지막 인생을 공연할 때가 됐어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벗이여, 확실히 말할게  
내가 믿었던 바대로 살았던 내 삶을 얘기해 볼게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난 삶을 꽉차게 살았어  
온갖 것을 다 해봤지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난 내 식대로 살았다는 거야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후회... 좀 있지  
그래도 꼭 말해야 할 정도는 아냐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계다가 하나도 예외없이 그 끝장까지 봤지.

I planned each charter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난 이미 알려진 길들을 다 걸어봤고  
모르는 새길을 조심스레 걷기도 했어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그리고 그보다 더 가치있는 것은  
난 내 길을 걸었다는 거야



Yes, there were times I'll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그래 맞아, 자네도 잘 알겠지만,  
좀 욕심을 부린 적도 있었지.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의심이 일 때도  
나는 일단 해보고 결과를 받아들였어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모든 것과 정면으로 맞서서  
난 내 식대로 살았던 거야

I've loved, I've laughed and cried  
I've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  
사랑도 해봤고, 울기도 웃기도 했지.  
잘 될 때도 있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어.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이제, 눈물이 가시고 보니  
모두 즐거운 추억일 뿐이네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내 인생을 되돌아보자면  
별로 부끄럽지는 않게 말할 수 있네

Oh, no,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아니, 아냐, 난 아냐.  
난 제대로 살았어"라고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aught  
사람이란 뭐고, 뭘 이뤘다는 것일까  
자기 나름의 삶을 못 살면, 아무 것도 없는 거지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And not the words of one who kneels  
자신이 진정 느끼는대로 살고  
겉장이가 되지는 말아야지?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and did it my way  
나를 보면 알듯이 난 늘 도전을 피하지 않았고  
늘 내 식대로 해냈어

Yes, it was my way  
그래, 그건 나의 길, 나의 삶이었어.

## Delilah(딜라일라)

I saw the light on the night  
That I passed by her window  
I saw the flickering shadows of love  
On her blind  
She was my woman  
As she deceived me I watched  
And went out of my mind

어느 날 밤  
그녀의 창가를 지나다가  
그녀 방의 블라인드 뒤로 흔들리는  
사랑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그녀는 내 연인이었지요  
그녀가 나를 기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미칠것만 같았어요

My my my Delilah  
Why why why Delilah  
I could see  
That girl was no good for me  
But I was lost like a slave  
That no man could free  
아~ 나의 딜라일라여  
왜? 왜? 그런 짓을...  
더이상 그녀가 내게 좋은 사람이  
못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누구도 나를 해방시켜줄 수 없는  
노예처럼 난 사로잡혀 있었어요

At break of day  
When that man drove a way  
I was waiting  
I crossed the street to her house  
And she opened the door  
She stood there laughing  
I felt the knife in my hand  
And she laughed no more

둥이트고  
그 남자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웃음을 머금은 체  
문을 열며 나를 맞아주다가  
내 손에 칼이 들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녀는 더이상 웃지를 못했어요

My my my Delilah  
Why why why Delilah  
So before they come  
To break down the door  
Forgive me Delilah  
I just couldn't take anymore

아~ 나의 딜라일라  
왜? 왜? 그런 짓을...  
그들이 와서  
문을 부수기 전에  
나를 용서해주오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오

She stood there laughing  
I felt the knife in my hand  
And she laughed no more  
My my my Delilah

Why why why Delilah  
So before they come  
To break down the door  
Forgive me Delilah  
I just couldn't take anymore  
Forgive me Delilah  
I just couldn't take anymore

그녀는 웃음을 머금은채 나를 맞아주다가  
내 손에 칼을 찌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녀는 더이상 웃지를 못했어요  
아~ 나의 딜라일라  
왜? 왜? 그런 짓을...  
그들이 와서  
문을 부수기 전에  
나를 용서해주오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오  
딜라일라 나를 용서해주오  
난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오

노래 손영희(팝페라 가수)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2005년 팝페라 가수 데뷔